

■ 연구노트

# 조선 전기 제주지역의 제지수공업 존재 확인을 위한 試論

전 영 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 조선 전기 제주지역의 제지수공업 존재 확인을 위한 試論\*

1. 머리말
2. 조선 전기 제주지역 닥나무 식재 관련 문헌 기록
3. 조선 전기 제주지역 제지수공업의 개연성 검토
4. 제주지역 야생 닥나무의 분포현황과 마을지 분석
5.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 전기 京外 제지수공업 체제의 확립은 태종 세종대의 관찬 사서 및 교훈서 발간과 각 관청의 사무용, 저화 발행, 군수용 등 정부의 크고 작은 일용품은 물론이고, 對明 외교의 한 방편으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정부는 제지 원료인 막대한 양의 닥나무 확보 노력과 전국 단위의 재배 면적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종이 원료는 한계를 보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倭楮의 수입 식재와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 제지술의 확보로 이어졌다. 특히 세종대에는 지방 수령

\* 본 연구노트는 지난해 연구논문 작성 과정에서 확인된 제주지역에 대한 관찬사서 기록의 再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고의 주제 선정과 함께 진행된 지난 5개월 여의 현장 조사와 문헌자료의 검토 과정에는 한라산연구소 등 관련 기관의 자문과 제주야생화 사진동호회([www.jeju.com](http://www.jeju.com))의 협조 및 제주대학교의 손명철교수님과 정광중교수님의 자료 협조가 있었다. 아울러 이 지면을 빌어 본 대학 사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조형근 원생의 자료조사에도 감사를 드린다.

에게 닥나무 재배 실태와 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정부의 제지 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 정부의 제지 원료 확보와 가공은 전 왕조의 제지 실태와 궤를 같이 하는데, 중국 후한의 제지기술이 삼국시대에 전래된 이후 고려시대에 더욱 발전하여 중국 문인들이 선호하였던 高麗紙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였다. 또 고려에서도 각 관청과 왕실에 소용되는 종이를 조달할 목적으로 서경 각 관과 주·부·군·현, 향·부곡·소 및 각 역에 紙位田 혹은 紙田을 지급하였고, 詹事府에 供紙戶를 지급하였다. 또한 왕실이나 중앙 관청에 종이를 공납하는 紙所가 있었으며, 일반 백성들도 皮紙 등 각종 종이를 공납하고 있었다. 아울러 종이의 제조 원료가 되는 닥나무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닥나무 재배를 장려하였다.<sup>1)</sup>

현재까지 축적된 조선시대 제지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수공업 조직의 형성과 발전의 범주 안에서 진행되었다.<sup>2)</sup> 특히 종이 수요처의 확대에 따른 수월한 종이 공급을 위한 정부의 대응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들은 조선전기 경제사 연구의

- 
- 1) 이정신, 「高麗時代 종이의 생산 실태와 紙所」, 『한국사학보』5, 고려사학회, 1998, 225-262쪽.
  - 2) 조선 초기 양질의 종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던 造紙署와 지방 官營紙所의 紙匠 확보, 중앙정부에 대한 종이 공납체제 정비와 代納과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로는 李光麟, 「李朝初期의 製紙業」, 『역사학보』10, 역사학회, 1958; 김덕진, 「조선시대 지방관영지소의 운영과 그 변천-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12집, 전남대 사학회, 1993; 河宗睦, 「제지업」,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1994; 金三基, 「15-16세기 지방관영지소의 운영과 변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朴道植, 「16세기 國家財政과 貢納制 운영」, 『國史館論叢』80, 국사편찬위원회, 1998; 한정수, 「조선전기 제지 수공업의 생산체제」, 『역사와 현실』33, 한국역사연구회, 1999; 김삼기, 「조선시기 제지기술의 도입과 紙料 가공기술」, 『생활문화연구』4, 국립민속박물관, 2002a; 김삼기, 「朝鮮前期 종이 貢納制 연구」, 『역사민속학』1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b 등이 참고 된다.

한 축을 담당할 정도의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sup>3)</sup> 이와 함께 고려시대 사원수공업의 전통을 이은 조선시대의 사찰 제지업에 대한 연구도 일부분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sup>4)</sup>

조선 정부의 제지업 전통은 전 시기에 걸쳐 권장되었던 닥나무 재배와 식재 등에서 확인되고, 『조선왕조실록』 세종대의 기록을 통해 제주지역의 제지수공업 여부를 탐색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송광사 소장 대장경관목의 일부가 13세기에 제주지역에서 판각되었던 사실과,<sup>5)</sup> 조선 초기 사찰 통폐합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주지역 사찰의 존폐 여부 등에서 사원의 제지수공업에 대한 존재를 찾는 근거가 추출될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조선 전기의 제주는 중앙 정부의 잉류지였기는 하지만

- 
- 3) 홍희유,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 지양사, 1989[복간]; 오용섭, 「倭楮의傳來와 抄造」, 『서지학연구』10, 서지학회, 1994; 강제훈, 「朝鮮初期의 田稅貢物」, 『역사학보』158, 역사학회, 1998; 이성임, 「16세기 지방 군현의 貢物分定과 수취」, 『역사와 현실』72, 한국역사연구회, 2006; 박경자, 「15세기 공물의 운송방법과 분청사기 銘文의 지역별 특징」, 『호서사학』47, 호서사학회, 2007.
- 4) 李光麟, 「李朝後半期の 寺刹製紙業」, 『歷史學報』17·18합집, 역사학회, 1962; 河宗睦, 「朝鮮後期の 寺刹製紙業과 그 生産品の 流過程」, 『역사교육논집』10, 역사교육학회, 1987; 고영성, 「麗末鮮初 僧侶의 經濟活動에 關한 研究」,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1988; 김갑주, 「조선시대 사원 경제사 연구」, 지양사, 1989; 金順圭, 「조선 후기 사찰 紙役의 변화」, 『청람사학』3, 한국교원대학교, 2000; 김인규, 「朝鮮 明宗代 星州地域의 寺刹의 製紙活動」, 『전통문화논총』1, 한국전통문화학회, 2003.
- 5) 윤봉택, 「13세기 濟州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의 事實 照明」, 『탐라문화』29, 제주대학교, 2006, 193-228쪽의 연구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대장경 관목의 판각과 관련하여 교정에 필요한 종이의 수급을 요하기 때문에 묘련사 자체의 종이 수급이나 지방 정부의 공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 한편,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사원수공업은 중앙 정부의 관영수공업과 일정 분야에서 상호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고, 고려 후기로 진행될수록 사원수공업은 관영수공업이 담당하고 있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전영준, 「高麗時代 供役僧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목사의 과견이나 방어사의 순시 등으로 주목을 받는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지방 편제에 맞는 운영이 있었다. 때문에 제주목·대정현·정의현 등의 관청에서 소용되었을 관수용 종이의 공급이 필연적이었을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체적인 수급 방법도 모색되었을 것이다. 정황 근거라는 약점은 있지만 지방 정부가 필요로 하는 수요량만큼의 제지 생산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현재 제주지역의 오름과 야산 등지에 자생하는 닥나무, 또는 삼지닥나무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 기록 등을 참고하여 조선 전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제지수공업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발간된 제주지역 마을지의 관련 내용 탐색과 현장 답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주제에 대한 논지를 전개하겠다.

## 2. 조선 전기 제주지역 닥나무 식재 관련 문헌 기록

조선 전기 제지수공업의 존재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여러 기록들 중 제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많지 않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편제를 미루어 볼 때, 전라도에 속했던 제주의 상황을 고려하고 『經國大典』의 京外工匠體制에 대한 분석을 염두에 둔다면 관련된 사서의 기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제주에서 생산되었던 닥나무 껍질에 대한 관찬 사서의 기록이 우선 확인된다. 제주선위별감이 진상한 닥나무 껍질 120근과 그에 대한 세종의 보호 명령은 제지수공업의 직접적인 원료인 닥나무 식재와 재배 권장을 통해 종이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6)</sup> 다만 이와 관련하여

6) 『世宗實錄』 권63, 16년 2월 3일 신해조. 濟州宣慰別監尹處恭, 進胡椒楮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이 시기에 진상된 닥나무가 고려 왕 조로부터 이미 제주지역에 자생하였던 것인지의 여부와 세종 조의 왜저 수입 기록과의 상관관계를 가려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sup>7)</sup>

이와 함께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의 「濟州牧」에서 확인되는 직접 사료로 <牛島> 항목에 ‘닥나무가 많다’는 기록으로 보아 1530년 이전에 이미 제주지역에는 자생 닥나무의 생장이나 새롭게 식재된 倭楮가 있었음이 밝혀진 셈이다.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조선 후기의 사서에서는 상당수의 기록이 확인되는 데, 1653년(효종 4)에 작성된 李元鎮의 『耽羅志』에는 ‘果園’ 항목에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있다.

남과원 ; 새로 심은 닥나무 48주, 연로 닥나무 113주, 소림 110주, 조천 250주, 지지 60주, 함덕 205주, 선홍 87주, 북포 308주, 김녕 185주, 해안 100주, 용동 331주, 덕천 220주, 광령 372주, 우라 398주, 부면 219주, 월계 330주, 문건 52주, 판지 20주.

저 전 ; 전에는 닥나무를 심지 않았으나 우도와 여러 과원에서 채취하여 썼다. 닥나무 893주를 새로 심었다.

이와 같은 기록의 존재는 조선 전기 중앙 정부의 관심은 줄곧 제주지역의 토산으로 닥나무(楮) 재배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一百二十斤, 卽傳旨濟州曰: 胡椒, 楮木爲雜木蔭蔽, 不得茂盛, 剪其雜木, 使之長盛;

7) 세종이 종이 원료인 닥나무(楮)의 재배방법을 개량하고자 1430년(세종 12)에 대마도에 사자를 보내어 倭楮를 들여오게 하고, 이를 동래 강화 등지에 이를 심어 종이를 뜨게 한 일이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제주지역의 닥나무는 왜저와는 전혀 다른 자생종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만일 자생종이라고 한다면 종이 생산을 시작하였던 삼국시대 단계의 탐라국 단계에서도 닥나무가 자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고려시대 제주지역 사찰의 존재와 수공업과의 상관성을 밝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재배 면적의 확대와 새롭게 닥나무를 식재하였다는 후기의 기록만으로도 중앙 정부가 종이 생산의 원료에 기울인 관심의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중앙 정부의 이와 같은 관심은 이미 세종이 하삼도에 내린 종이의 생산과 수급에 관한 여러 교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호조에 교지를 내리기를, “내가 鑄字所로 하여금 『綱目續編』을 인쇄하고자 하니, 경상도에서 冊紙 1천 5백 권을 준비하게 하고, 전라도에서 2천 5백 권을 준비하게 하되, 국고의 쌀로써 민간의 닥나무[楮]와 교환하여 종이를 만들어 바치게 하라.”고 하였다.<sup>8)</sup>

충청·전라·경상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性理大全』·『五經』·『四書』 등을 인쇄하려고 하니, 그 책에 쓸 종이를 값을 주고 닥(楮)으로 바꾸어 충청도는 3천帖, 전라도는 4천첩, 경상도는 6천첩을 만들어 진상하라.”하였다.<sup>9)</sup>

사료에서처럼 국가가 중시하는 인쇄물의 확보는 종이의 생산과 수급이 용이하였던 닥나무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결정된 정책 대안이라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제주목은 전라도에 속한 행정 편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시기에 제주지역의 닥피 진상 기록을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음의 <표>는 제주목의 국가 행정 편제와 종이 생산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생각된다.

- 
- 8) 『世宗實錄』 권19, 5년 2월 5일 병진조. ‘下旨于戶曹: “予欲令鑄字所印『綱目續編』, 其令慶尙道冊紙一千五百卷, 全羅道二千五百卷, 以國庫米換民間楮, 造作上進.”’
- 9) 『世宗實錄』 권30, 7년 10월 15일 경진조. ‘傳旨忠淸, 全羅, 慶尙道監司: “欲印『性理大全』, 五經四書, 其冊紙給價換楮, 忠淸道三千(帖) [帖], 全羅道四千帖, 慶尙道六千帖, 造作以進.”’

&lt;표&gt; 『경국대전』 京外紙匠의 지역별 분포

지역	京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	계
주군현 수 (紙匠 數)	조지서(81) 교서관(4)	54 (131)	67 (265)	54 (237)	25 (33)	24 (39)	305 (709)
기타				대정, 정의	정선		
※ 기타는 각 도 주군현 가운데 所屬紙匠이 없는 곳임							

위의 <표>에서와 같이 중앙 정부는 전국의 지장을 파악하고 이를 『경국대전』에 반영함으로써 생산되는 종이의 품질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방의 종이 생산에 대해 국가는 군현의 운영을 통한 직접 지배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전라도 지역의 지장 수는 237명으로 경상도와 함께 양질의 종이 생산이 가능한 지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지정된 지장 숫자와는 별도로 대정현과 정의현을 같은 항목에 편성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정현과 정의현에 종이 생산을 관장하는 소속지장은 없지만 언제든지 전라도 지역의 지장을 파견하여 양질의 종이 원료 생산과 가공이 가능하였음을 의미한다.

전국 단위의 주요 생산지와 재배지에 대한 정부의 확보 노력은 조선 초기부터 진행되었던 상당량의 서적 印刷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 밖에도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불경의 간행을 들 수 있다. 조선은 표면적으로는 억불정책을 표방하였지만, 실제 왕실 내부 즉 세종·세조와 같은 好佛 군주를 비롯하여 대군·왕자·비빈·종실 부녀자 및 민간인들 사이에는 여전히 불교가 숭신되고 있었다. 또한 명의 승불 경향과 일본·유구 등의 승불에 기인한 끊임없는 대장경 요청 등 조선을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도 조선 초기의 불교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大藏經』을 해인사에서 印行하게 하였다. 풍해·경기·충청도 관찰사에게 전지하여, 그 도에서 만든 經紙 260束을 경상도에 遞輸하게 하고, 또 경상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채수한 경지를 해인사로 輔輸하여 대장경을 인행함이 옳으나, 그 印出할 때에 諸緣과 중(僧) 2백 명에게도 朔料를 모두 지급토록 하라.”하니, 임금이 태조가 부처를 좋아하여 일찍이 開慶寺를 세웠다 하여 또 『대장경』을 인출하여 여기에 안치함이었다.<sup>10)</sup>

桂陽君 李璿에게 명하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대장경』 50벌을 박아낼 종이 40만 6천 2백 권을, 여러 도에 나누어 諭示하여 중국 삼(漢麻)을 쓰고 닥나무 껍질(楮皮)과 섞어서 제조하여 바치게 하라.”하였다.<sup>11)</sup>

왕실의 숭불과 인경 사업은 역대 왕들의 재위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국왕의 개인적 신앙 행위에 더하여 중국 측의 불경지 요구<sup>12)</sup> 및 일본·대마도·유구의 계속적인 불경 요청<sup>13)</sup> 등 대외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이 밖에도 조선 초기에는 수십 차례의 불경 印刊 사업이 있었고, 불경이나 서책의 인쇄는 주로 주자소·전교서·간경도감·사찰 등에서 담당하였다.<sup>14)</sup>

건국 초부터 文治를 표방하였던 역대 국왕들의 주요한 통치 행위로 인식하였고, 그 실천 방법을 경서류·윤리서·역사서·

- 10) 『太宗實錄』 권25, 13년 3월 11일 경인조. ‘命印大藏經于海印寺. 傳旨于 豐海、京畿、忠<清>道觀察使, 遞輸其道所造經紙二百六十七束于慶尙道. 又傳旨于慶尙道觀察使曰: “今遞輸經紙, 宜轉輸于海印寺, 印大藏經. 其印出時諸緣及僧二百朔料, 並皆給之.” 上以太祖好佛, 曾建開慶寺, 又印大藏經以安之也.’
- 11) 『世祖實錄』 권8, 3년 6월 20일 임자조. ‘命桂陽君璿, 傳于承政院曰: “大藏經五十件印出紙四十萬六千二百卷, 分諭諸道, 用漢麻雜以楮皮造進.”’
- 12) 『世宗實錄』 권3, 1년 1월 19일 갑자조. 황엄이 사신으로 와서 불경지 2만장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중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서도 정부는 응하였으며, 외교적인 관례에 따른 결과였다.
- 13) 조선 태조 때부터 명종 때까지 매년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을 요청하였고, 심지어는 경판 자체를 요구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장경을 印經하여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 14) 河宗睦, 앞의 글, 298쪽.

법전류·의학서 등의 서적 간행과 반포에 두었다. 더욱이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대장경 인경 작업 등은 막대한 종이 수요를 가져와 일찍부터 관수용으로 책정되었던 종이의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초부터 종이 생산의 원료인 다향나무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관청은 물론, 廢寺址나 공터 등에도 다향 재배를 권유하고 있다. 다음의 기록은 태종 때부터 다향재배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사간원 左司諫大夫 柳伯淳 등이 상소하였다. 종이(紙)는 쓰이는 데가 넓어서, 무릇 公私書啓와 대소 喪葬에 쓰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국가에서 다향(楮)로 貨幣를 만드는 데이겠습니까? 신 등이 가만히 보건대, 大小民家에 다향무밭(楮田)이 있는 자는 백에 하나 둘도 없고, 간혹 있는 자도 소재지의 官司에 빼앗기어, 이익은 자기에게 미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베어버리는 자가 있으니, 이것이 한탄할 일입니다. 또 중국에서 本朝의 종이를 좋다고 하여 간혹 와서 구하기도 하니 이것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원컨대, 각도로 하여금 大戶는 2백 株를, 中戶는 1백 주를, 小戶는 50주를, 내년 2월까지 한하여 일체 모두 심게 하고, 監司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고찰하여, 만약 법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楮貨로 收贖하고 수령을 죄주되, 일찍이 楮田이 있는 자는 이 한계에 들지 않게 하소서.<sup>15)</sup>

私處의 家舍 基地와 모시밭(苧田)· 다향밭(楮田)· 곧밭(莞田)· 과수원· 칠림(漆林)· 죽림(竹林) 등 무릇 이익이 있는 곳은 다른 밭의 예로 헤아리고, 公處·寺院·基地같은 곳은 모두 측량하지 말 것.<sup>16)</sup>

- 15) 『太宗實錄』 권20, 10년 10월 29일 임술조. ‘司諫院左司諫大夫柳伯淳等上疏. 疏略曰: 一, 紙之爲用廣矣. 凡公私書啓, 大小喪葬, 莫不用之. 況今國家, 又以楮爲貨乎? 臣等竊見, 大小民家有楮田者, 百無一二, 而其僅有者, 又爲所在官司所奪, 利不及己, 而害且隨之, 故非惟不種, 或有斬刈而去之者, 是可歎也. 且上國以本朝之紙爲美, 或來求之, 是亦不可不慮也. 臣等願令各道, 大戶則二百條、中戶一百條、小戶五十條, 限來年二月, 一皆種之, 令監司差人考察, 有不如下法者, 贖徵楮貨, 罪及守令, 曾不在此限.’
- 16) 『世宗實錄』 권102, 25년 11월 14일 을축조. ‘命左贊成河演, 知中樞院事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닥나무 재배지는 물론 종이 생산에서도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 위의 기록에서와 같이 민가의 닥나무 재배는 결국 관가의 공납에 포함되거나, 추가적인 공물 납부를 강요받았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연유로 백성들의 닥 재배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왜저의 수입 식재가 시도되었던 것이다.

### 3. 조선 전기 제주지역 제지수공업의 개연성 검토

『世宗實錄』 기사에 따른 제주지역의 닥피 진상은 조선 전기 지방에서 생산되는 공납과 관련이 크지만, 국왕의 특별한 하교에 따른 결과였다. 이 기록의 중요성과 더불어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우도의 닥나무 자생 기록 또한 제주지역 자체의 제지수공업 생산 체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 배경에는 국초부터 왕실과 관수용 종이 공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었던 사실과 연관할 때, 지방 관청의 종이 수요에 대한 중앙 정부의 공급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전라도에 속해 있던 제주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종이는 자체적인 수급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를 위한 닥나무 생산이나 공장 체제도 일정 정도는 유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7)</sup>

鄭麟趾, 判書雲觀事李純之, 注簿朴允昌·全淡等, 往京畿安山量田. 戶曹啓量田事目: (….) 一, 私處家舍基地及苧楮莞田菓園漆林竹林等凡有利益處, 以他田之例量之. 若公處及寺院基地. 毋令并量. (….)

- 17) 『經國大典』에서 밝히는 소속지장의 제주지역 파견과 관계없이 종이 생산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전제로 하면, 부분적이거나 생산 체계를 갖추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선 전기 제주지역에 부임하였던 목사 등의 문집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

국초부터 종이 생산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다투 무 재배 면적의 확대를 촉진시켜 나갔다. 하지만 세종대에 대규모 이루어진 서적 인쇄와 끊임없는 인경 사업은 종이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종이의 부족이 비단 세종 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은 수요의 증가로 인한 단순한 양적 부족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종조 초기에 허용했던 防納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종이 부족 현상을 가속화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幹事僧 등이 공물 대납 후 民戶를 압박하면서 나타난 민호의 이탈이 불러온 생산차질과도 관련이 있다.<sup>18)</sup>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遼人 申得財가<sup>19)</sup> 만든 華紙로 『17史』를 인쇄하고 紙工에게 기술 습득을 명하였던 사실은, 당시 조선이 외국의 선진 제지기술을 습득하고자 하였던 노력의 하나로 보인다. 다음의 기록은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正使 金湜이 물건을 청구하는 글을 손수 써서 迎接都監에 부탁하니, 영접 도감에서 그것을 아뢰었다. (….) 박원형이 종이 만드는 법(造紙法)을 물으니, 정사가 대답하기를, “보통 쓰는 黃紙는 嫩竹葉과 桑皮를 섞어서 만들며, 詔勅을 쓰는 白紙는 순전히 상피만을 사용합니다.” 하니, 임금이 조지소에 명하여 이것에 의거하여 시험해 보게 하였다.<sup>20)</sup>

紙匠 朴非는 일찍이 謝恩使를 따라 북경에 가서 造紙法을 배웠다. 그 하나는 북경의 哈大門 밖 25리 지점에 종이를 제조하는 곳

자 한다.

- 18) 김삼기, 2002b, 앞의 글, 93쪽. 간사승 등이 방납을 독점하면서 貢物의 자의적인 분정(정액 이상의 加徵이나 倍徵)과 引納·點退 등이 민호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고 보았다.
- 19) 『太宗實錄』 권23, 12년 1월 17일 임인조; 『太宗實錄』 권24, 12년 7월 9일 임진조. ‘賜申得財米及絨布. 得財, 遼人也. 造華紙以進, 下鑄字所, 印十七史. 賜得財米五石, 綿布三匹, 令紙工傳習.’
- 20) 『世祖實錄』 권33, 10년 5월 22일 갑술조. ‘甲戌/正使金湜手書求請物件, 付迎接都監, 都監以啓. (….) 朴元亨問造紙法, 正使答曰: “常用黃紙以嫩竹葉及桑皮和造, 書詔勅白紙純用桑皮.” 命造紙所, 依此試之.’

이 있는데, 모두 麻紙를 상용하였다. … 또 하나는 正陽門 밖 20리 남짓한 데에 종이를 제조하는 곳이 있는데, 生麻를 사용하며, 가늘게 끊어 물에 씻고 석회와 화합하여 삶아 익혀서 대광주리에 담았다가 깨끗이 씻어 껍질[皮]을 제거하여 돌멩들로써 곱게 갈아 다시 치밀하게 엮은 대광주리에 담고, 깨끗이 씻어 건져내어 제조한다.<sup>21)</sup>

당시 조선의 제지법은 닥나무(楮)를 이용한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닥나무의 공급이 수월치 않게 되자 보리 짚이나 마른 풀 등을 첨가하여 종이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는 민간의 닥나무 재배가 용이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倭楮의 수입을 통해 난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sup>22)</sup> 다음의 기록도 왜저에 대한 군왕의 관심을 피력한 기록이어서 주목된다.

승정원에서 傳旨를 받들어 전라도 관찰사에게 馳書하기를, “도내의 靈光 巨頭山 동쪽 산기슭에서 倭楮가 나는데, 수령이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왜저의 條數를 친히 살펴서 계달하고 또 간수하는 사람을 정하여 엄하게 禁防을 가하라.”<sup>23)</sup>

이는 닥나무의 생산과 관련하여 정부의 민감한 반응이지만,

- 
- 21) 『成宗實錄』 권51, 6년 1월 19일 기사조. ‘紙匠朴非曾從謝恩使如京, 學造紙法. 其一 北京哈大門外二十五里地, 有造紙處, 皆常用麻紙也. … 一, 正陽門外二十里許, 有造紙處, 用生麻細截, 灑水和石灰熟蒸, 盛於竹筐子, 洗淨去皮, 以石磑細磨, 復盛於密比竹筐子, 洗淨撈出造之.’
- 22) 『世宗實錄』 권49, 12년 8월 29일 정유조. ‘傳旨禮曹: 遣人于對馬島, 求得造冊紙倭楮以來.’ 왜저 식재와 관련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지리지 편찬 이후 수입, 식재되었기 때문이다. 왜저 식재와 관련한 기록으로는 『世宗實錄』 권65, 16년 8월 3일 정미조. ‘傳旨禮曹: 慶尙道東萊縣及京畿江華, 栽植倭楮, 未有考察培養之條, 恐將絕種. 令監司每年夏秋, 開具榮枯之狀以聞.’이나, 『世宗實錄』 권84, 21년 1월 13일 임진조. ‘造紙所啓: “江華所種倭楮之實, 請於海氣相連忠清道泰安, 全羅道珍島, 慶尙道南海·河東分種.” 從之.’
- 23) 『世祖實錄』 권29, 8년 11월 12일 임인조. ‘承政院奉旨馳書全羅道觀察使曰: “道內靈光巨頭山東麓產倭楮, 守令匿不以聞, 甚不可. 倭楮條數親審以啓, 且定看守人, 嚴加禁防.”’

수령의 지방 통치와 관련하여 계달한 조서가 많았음은 그만큼 지방에서 생산되는 닥나무의 확보에 중앙의 관심이 지극하였음을 말한다. 위의 기록과 관련하여 볼 때, 세종 8년에 이미 영광에서 왜저가 생산되었던 사실은 왜저의 공식적인 식재 기록이 1434년(세종 16)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sup>24)</sup> 제주지역의 닥피공납과 연계하여 보면 왜저수입 이전에도 섬지역에는 자생 닥나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때문에 제주에서 진상한 닥피 120근이 자생인지 왜저인지에 대한 확인은 닥나무 재배와 관리라는 차원에서 수령의 근태여부를 명한 정부의 의지와 연계하여 새롭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제주지역에서 닥나무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진상되었다는 정부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이미 제주에서는 닥나무와 제지수공업이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1300년대 후반에 제주지역의 묘련사에서 대장경 관련 판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교정과 교열에 필요한 종이 수급은 사원 자체의 기술력으로 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제지수공업의 존재를 확인하는 하나의 단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고려시대에 사원을 중심으로 활발하였던 사원수공업의 전통과 고려 시기 제주지역의 사원 분포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조선 초기의 제주는 전 왕조의 수공업이 전승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sup>25)</sup>

통상적으로 전근대시기의 종이 수공업은 가을걷이가 끝난 후

- 
- 24) 왜저 식재의 공식 기록과 달리 이미 8년 전에 영광에서 왜저가 난다는 것을 보고한 기록에서 의문점은 '왜저'의 품종이 해안이나 도서에서 재배되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더 자세한 조사가 전체되어야 하겠지만, 제주 등지의 도서에서 생산되는 닥나무와 내륙 산간의 닥나무가 서로 달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 25) 사원수공업의 양상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재창,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 불교시대사, 1993; 전영준, 앞의 학위논문, 2004; 이병희, 『고려시기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9.

부터 진행되었다. 닥나무의 성장 환경과 추수가 이 시기에 집중되었고, 점성 있는 종이 원료 제조를 위한 황촉규 뿌리 점액의 수확은 차가운 물에서 걸러지는 특성 때문에 종이 수공업 자체가 苦役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조지소 설치와 관영 지소에서 생산되는 종이 외에도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종이 생산도 가속화되었던 사실은 고역의 하나였던 종이 생산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확인하였던 『경국대전』 경외지장 분포에 포함된 대정, 정의현의 기록은 고려 시기 제주지역의 수공업 원료 수급과 상당한 관련성을 내포하지만, 조선 후기 제주지역의 책판 조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다음의 기록은 1694년에서 1696년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이익태가 제주목의 책판 실태와 조성 과정에 대한 『지영록』의 내용이다.

본주에 있는 책판은 일찍이 화마로 인하여 소실되어 남은 것이 없다. 그 후에 『사서언해』, 『의례문해』, 『전등신화』, 『사략』 등의 책판을 구비하였다. 그러나 책판을 보관할 장각이 없어서 제주향교 내에 있는 東齋에 보관하고 있다. 봄·가을 재를 모실 때, 여러 유생들이 재에 머무르면 그 유생들로 하여금 책판을 마당으로 꺼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매우 구차하기 때문에 입번하는 하인으로 하여금 번을 면제하는 대신 장각의 재목을 구해오도록 했다. 그래서 大木은 5-6명, 中木은 3-4명, 小木은 매 사람마다 나누어 모은 것을 가지고 책판을 보관할 5칸의 장각을 지어 그곳에 보관하도록 했다. 그리고 책을 인출할 때에는 재임이 책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교생들이 각각 책판 제작에 필요한 판재를 하나씩 준비하여와 『소학』, 『언해상례비요』 등의 책판을 만들고 싶다 하였다.

이에 營牧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각수 70여 명을 뽑아 각각 당번을 세워 판목을 정리하도록 하였고, 또한 그 가운데서 판각을 잘하는 善手 10여 명에게는 별도로 급료를 주고, 교정토록 하였는데, 3개월 후 판각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또한 宣廟御筆인 『大字草書』 8첩을 판각하였다. 그리고 새로 판각한 『소학』 및 『상례』는 3질을 찍어내어 제본한 후,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에 있는 향교에

나누어 주었다.

기록으로만 볼 때에도 제주지역의 책판 조성은 특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고, 판각과 인출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청이 있는 지역에 보관을 책임지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출된 서적은 지극히 소량이지만 종이 공급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고증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서적 간행 과정에는 소요 경비를 자세히 기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의 책판 조성 과정에 소용되었던 종이는 관청에서 이미 보관하고 있던 공납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 4. 제주지역 야생 닥나무의 분포현황과 마을지 분석

조선 전기 제주지역 제지수공업 체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방법은 관련 기록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근거 자료가 일부 관찬사서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하여 조선 전기 제주의 수공업체제를 확인하는 작업은 유의미한 일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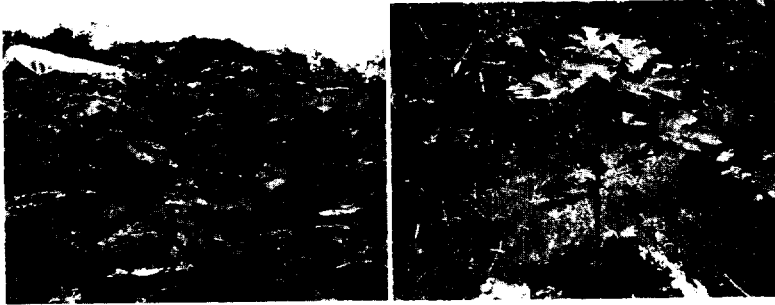
제주지역 상황을 알려주는 기록들은 대체로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기의 수공업을 추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추가적인 자료 조사와 문집 검토를 통해 보완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장에서는 현재까지 제주에서 발간된 마을지를 중심으로 닥나무 자생지 분포와 형태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마을마다 있었던 수공업 상황이나 닥나무 관련 방언 등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의 닥나무 관련 사안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주지역에서 자생하는 닥나무의 외형적 모습은 내륙의 경기



도 지역의 닥나무와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양자 간의 품종별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참조).<sup>26)</sup> 종종 산뽕나무와 닥나무, 꾸지닥나무가 형태상 다름에도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그림 참조).

<그림 1> 닥나무(좌)와 꾸지닥나무(우) <http://cafe.daum.net/youreden>



한편, 제주지역의 선정비 중에도 제지 관련 기록이 있어 주목되는데, 『判育金公基洪永思碑』에는 재임 중 호적을 작성할 때 종이 값이 지불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sup>27)</sup> 조선 후기의 금석문이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록이

- 
- 26) 닥나무는 산록이나 발독에 나는 낙엽 관목으로 키는 3m 가량, 잎은 호생이며 난형 또는 긴 난형을 이룬다. 잎의 길이는 5~20cm,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대개 2~3개의 결각이 있으며 표면은 거칠다. 뒷면은 털이 있다가 없어진다. 결실기는 9월이며 수피는 제지용, 열매는 약용이며 어린잎은 식용한다. 한국 전역과 일본, 타이완, 중국에 분포한다.  
꾸지나무는 산기슭이나 양지, 발독에 나는 낙엽 소교목으로 키는 12m, 지름 50cm 가량이다. 잎은 호생 또는 대생, 넓은 난형, 원형, 대개 2~6개의 결각이 있고, 길이는 7~20cm이다. 예리한 톱니가 있으며, 표면에 털이 있고 거칠며 뒷면에도 털이 있음. 조림수, 제지용, 약용, 식용이며, 한국 전역과 일본, 중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한다(『한국식물대도감』, 245쪽).
- 27) 이 금석문은 2곳에 있는데, 한경면 판포리 2531번지 마을회관과 제주 민속박물관에 소재한다. 동일한 내용을 전하지만 입비연대가 달라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북제주군의 문화유적』 I, 1998, 195쪽; 『제주시 비석일람』, 탐라문화연구소, 2002, 136쪽).

<그림 2> 수종 비교(<http://cafe.daum.net/youreden>)

<p>비 교</p>			
<p>비 교</p>	<p>모종 향나무, 나무이고 향나무라든가 모두 농민들이 많이 심었다. 향나무는 두 가지로 갈라지며, 하나는 수직적으로 되고 향나무이다. 향나무는 향나무에 많이 있다.</p>	<p>향나무 나무에 향나무라든가 모두 농민들이 심었다. 향나무는 여러 가지의 꽃부분, 수꽃과 암꽃은 여러 가지의 아랫부분에 달린다. 향나무는 향나무에 많이 심었다. 향나무는 향나무에 많이 심었다. 향나무에 많이 있다.</p>	<p>향나무 나무에 향나무라든가 모두 농민들이 심었다. 향나무는 향나무에 많이 심었다. 향나무는 향나무에 많이 심었다. 향나무에 많이 있다.</p>

마을지에 전한다.<sup>28)</sup> 이 밖에도 닥나무를 식재한 기록이나 관련한 방언이 전하는 마을지로는 『명월향토지(2003)』·『용담동지(2001)』·『광령약사(1990)』·『김녕리향토지(1986)』·『평대리지(1990)』·『둔지오름(한동리지, 1997)』·『가스름(가시리지, 1988)』·『하례2리지(1994)』·『화순리지(2001)』·『판포리지(1995)』·『다라곳(월평동지, 2001)』·『이도2동지(2009)』·『하효지(2010)』 등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닥나무와 관련된 용어들은 대체로 마을지의 지명 유래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주변에 분포한 오름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식생하거나 조선 후기의 과원터를 중심으로 식재되었던 닥나무에

28) 금성리 495번지 부근 일대를 紙匠址라 칭하며 1745년 당시 72명이 이 작업에 종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대형 석조도구와 목조기구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애월읍지』, 금성리 지명유래, 1997, 222쪽). 또 이곳에는 '종이물'과 '사장창'이 있어서 닥나무밭(楮田)을 운영하고 관청에 종이를 납품하였다는 기록도 아울러 전한다(같은 책, 225쪽). 광령 3리에는 '셋자종이물'이라는 용천수가 전하는데 이 용수가 제지작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같은 책, 642쪽).

<그림 3> 제주 닥나무 잎과 열매(좌, [www.jeju.com/](http://www.jeju.com/))/  
닥나무와 꾸지나무(우, <http://cafe.daum.net/youreden/>)



대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중 『하효지』에는 제지수공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예부터 하효마을에서는 生楮나 면화를 원료로 하여 土紙 등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이 있었다. 지역 내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황무지를 개간하여 楮田을 확보하였고, 이를 원료로 제지나 명석, 초신, 망태기 등의 재료로 활용하였다고 한다.<sup>29)</sup> 이와 함께 제지 과정도 상세하게 전하고 있어서 조선 전·후기 제주지역의 제지수공업 상황을 逆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제주지역에 산재하는 오름 중에도 야생으로 분포하는 삼지닥나무가 확인되는데,<sup>30)</sup> 저지오름 정상부와 묘산봉, 과오름, 갯거리오름 등지에서도 닥나무 등의 자생에 대한 이야기를 채록할 수 있었다.<sup>31)</sup> 오름이 갖는 환경으로만 보더라도 제주지역은 닥나무 식생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마을과 마을의 경계에 걸치는 오름의 특성 상 여러 마을지에서 비슷한 유형의

29) 『하효지』, 하효마을회, 2010, 253-245쪽.

30) 2000년대 초반에 교육박물관의 양종열 선생이 닥나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주로 삼지닥나무는 해방 후 관상용으로 들여와 남제주군 지역에 식재하였다고 한다(2011년 10월 한라산연구회 채록).

31) 제주 닥나무의 분포는 오름 주변을 중심으로 식생하며, 상당한 범위에 걸쳐 자생하는 닥나무가 있음을 채록하였다(제주야생화 사진동호회, 2011년 10월 채록, 조○○, 67세, 귀덕 거주, 2011년 12월 채록).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닥나무와 관련한 지명중에는 닥피 생산에 꼭 필요한 用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이 원료의 생산 과정에는 찌고 씻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수에도 관련 방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 5. 맺음말

전근대시기 제주지역의 상황을 전하는 사료는 조선 후기에 작성된 기록이 많은데 반면, 조선 전기의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사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문집 등을 통하여 관련 사료를 수집하는 1차적인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이미 완성된 형태로 남아 있는 사료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노트의 작성은 지난해에 발표된 필자의 연구논문 수록 사료에서부터 출발한다. 『세종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관찬 사서에 보이는 제주지역 제지원료 진상 기록의 재검토 과정에서 오름이 갖춘 환경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세종대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제지 원료 생산은 이미 제주지역에서 종이 원료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부분적이지만 종이 생산 체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으로 묘연사의 대장경과 관련한 수정 판각이 있었다는 사실과, 여말선초 시기에 제주지역에 존재하였던 사원의 분포를 감안하면 이른 시기의 제주지역에도 제지수공업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대체로 관청이나 사원이 지닌 기술력 중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는 제지업, 小木業, 瓦業, 窯業 등의 민수용품 생산과 연관되는 소규모의 수공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제지업은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물품으로 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필자가 관찬사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 전기 제주지역의 수공업 존재 양상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발굴된 문헌 자료의 재검토와 당대에 제주에 파견되었던 수령들의 문집을 차례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진행된 현장조사를 지도에 옮겨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한 작업일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단 몇 줄의 기록을 근거로 삼아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여말선초 시기에 제주도가 지닌 역사적 위상 제고와 중앙 정부와의 관계와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본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